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현 경 실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국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
현황 조사

201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주 희

전국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
현황 조사

현 경 실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주 희

인 준 서

김주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는 전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의 내용 및 현황을 조사하여 음악교육 연구의 기본 자료가 되고, 음악 프로그램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또, 본 연구를 통해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을 장르별 프로그램, 영역별 프로그램, 주제 선택 활동과 예술·체육활동 및 시수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 14개 시·도의 411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세부 항목으로 범주화하고 Excel 201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통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 1013개의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 중, 장르별 음악 프로그램은 국악 프로그램이 66개, 서양음악 프로그램 135개, 대중음악 프로그램이 278개, 교육용 악기 프로그램이 376개로 가장 많이 운영 되었고, 그 외 음악 프로그램은 158개로 구성 되었다.

각 장르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로는 국악 프로그램에서 사물놀이 프로그램이 51.5%, 서양음악 프로그램에서는 합창 프로그램이 32.6%로 가장 많이 운영되었다. 대중음악 프로그램은 기타 프로그램이 28.8%,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교육용 악기 프로그램에서는 우쿨렐레가 3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외 음악 프로그램은 2가지 이상의 영역과 타 교과와의 연계가 있는 통합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보다 많이 구성되었다.

둘째, 자유학기제의 영역별 프로그램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생활화, 그 외의 6가지 영역 중에서, 기악 프로그램이 총 630개(62.2%)로 가장 많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유학기제의 주제 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및 시수를 살펴보

면 예술·체육 활동에 87.5%로 더 많은 음악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주제 선택 활동과 예술·체육 활동의 시수는 각 학교의 여건에 따라 편성되었는데, 68시수가 44.5%로 가장 많이 운영되는 시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기악 영역 프로그램이 타 영역 프로그램보다 더 많이 운영되었으며, 국악 프로그램이 장르별 프로그램 중 가장 적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악 영역 외에 가창, 창작, 감상 등의 타 영역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위하여 국악 프로그램이 더 많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문제.....	3
3.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5
1. 자유학기제 이해 및 교육과정.....	5
2. 자유학기 활동과 음악 프로그램.....	9
3. 해외사례.....	11
4. 선행연구 고찰.....	14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7
1. 연구 대상.....	17
2. 연구 기간.....	17
3. 연구 도구.....	17
4. 연구 방법.....	18
5.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21
IV. 연구결과 및 해석	22

1. 장르별 음악 프로그램 분석.....	22
가. 국악 프로그램.....	25
나. 서양음악 프로그램.....	27
다. 대중음악 프로그램.....	29
라. 교육용 악기 프로그램.....	31
마. 그 외 음악 프로그램.....	33
2. 영역별 음악 프로그램 분석.....	36
3. 주제 선택, 예술·체육활동 및 시수 분석.....	38
V. 결론 및 제언.....	42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음악 프로그램명 유사 프로그램 분류 및 내용.....	20
<표 2> 국악, 서양음악, 대중음악, 교육용 악기, 그 외 음악 프로그램 분류.....	24
<표 3> 국악 프로그램.....	26
<표 4> 서양음악 프로그램.....	28
<표 5> 대중음악 프로그램.....	30
<표 6> 교육용 악기 프로그램.....	32
<표 7> 그 외 음악 프로그램.....	34
<표 8> 통합 프로그램 분류.....	35
<표 9> 영역별 음악 프로그램.....	37
<표 10> 주제 선택, 예술·체육활동.....	39
<표 11> 주제 선택, 예술·체육활동 시수.....	41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결정하여 일에 대한 전문성을 증진시킨다면 직업인으로서 만족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질 계발 이전에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적성과 소질의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발달하는 중간 과정에 속하며 이 시기에는 신체적 및 정신적 변화가 일어난다. 진로 발달 이론가인 수퍼(Super, 1990)에 따르면, 중학생 시기는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적성 및 소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민함으로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하기에 가장 적절한 단계이다.¹⁾ 따라서 이 시기에 학생들이 학교 교육의 틀 안에서 자아 정체성을 탐구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와 덴마크의 애프터스쿨(Efterskole) 등에서 착안하여,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 및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인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2013년 42개교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자유학기제 연구·희망학교를 운영하였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5.9.15), 2015 개정 교육

1) 김봉환 외(2013). **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pp.69-74.

과정에 자유학기제를 반영하여 자유학기제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²⁾ 2016년부터는 전국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었고, 2017년부터 일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여건에 맞게 확대 운영을 하면서 2018년부터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1년동안 운영되는 자유학년제가 시행되고 있다.³⁾

자유학기제 해당 학기에는 교과와 자유학기 활동으로 나누어 오전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의 교과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주제선택 활동, 진로탐색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등의 자유학기 활동으로 운영된다. 진로탐색 활동은 학생의 진로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진로검사, 직업탐방 등의 직접적인 경험을 쌓고, 주제선택 활동은 고전토론, 경제교육, 체험적인 수학활동 등의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예술·체육 활동은 뮤지컬, 오케스트라, 연극, 영화, 농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꿈과 끼를 찾아보고, 그 외에도 천체 관측, 힙합, 자전거 타기 등 학생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토대로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진다. 음악 프로그램은 주로 주제 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에 편성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이 개설된다.⁴⁾

음악 과목은 다양한 활동으로 음악적 경험을 하고, 음악을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교과라고 제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⁵⁾과 같이,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은 음악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음악을 삶 속에서 향유하고 음악적 체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자유학기제 음악 활동을 통해 학생 본인의 음악적 적성을 탐색해보고 계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모든 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자유학기제의 음악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교육부(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안). pp.1-2.

3) 교육부(2017).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 p.1.

4) 교육부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꿈끼 사이트 (<https://www.ggoomggi.go.kr>)

5) 교육부(2015). 음악과 교육과정.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국의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여 음악교육 연구의 기본 자료가 되고, 음악 프로그램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데 있다. 따라서 전국 13개 시·도에서 각 30개교, 세종시 21개교로 총 411개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의 내용 및 현황을 알아보려고 한다.

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의 장르별 음악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둘째, 자유학기제의 영역별 음악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셋째, 자유학기제의 주제 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및 시수는 어떠한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각 30개교와 세종시 21개교 총 411개교를 선별하여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 실태를 조사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전국 모든 학교의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 현황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연구 도구인 학교 알리미 사이트(<https://www.schoolinfo.go.kr>)는 매년 4월과 9월에 공시되어 2018년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토대로 현황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운영 현황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서 문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 운영되는 수업 방식과 내용이 기재된 것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고,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 되었을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유학기제 이해 및 교육과정

가. 자유학기제 개념 및 목적

자유학기제 지원센터에서 소개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⁶⁾

이와 같이 자유학기제는 자신의 적성과 소질, 그리고 진로에 대하여 탐색 및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꿈과 끼를 찾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또한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은 창의성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기존의 지식 위주 경쟁구도에서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한 교육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 학생들이 미래를 위한 핵심역량을 함양한 학습자들이 되고, 행복한 교육을 이루는 것에 자유학기제의 목적이 있다.⁷⁾

나. 자유학기제 추진배경

1997년부터 OECD에서는 역량에 관한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6) 교육부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꿈끼 사이트 (<https://www.ggoomggi.go.kr>)

7) 교육부(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안). p.6.

of Competencies)프로젝트로 3가지 범주의 9가지 역량을 선정하였고, 이것에 관심을 둔 여러 학자들과 많은 나라들은 역량에 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다.8)

사회적으로는 과도한 경쟁 및 입시교육, 학생들의 미래 진로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점이 이슈화되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여겨졌다. 또한, 중학생의 행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로가 연계된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에서 이에 대한 대안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 되었다. 그리고 18대 정부의 공약사항 이행이라는 정치적인 영향과, 세계적으로 교육의 흐름이 미래지향적 역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여러 요인에 의하여 자유학기제 교육으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9)

다. 자유학기제 추진과정 및 시행 현황10)

자유학기제는 18대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 후,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확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에는 811개교, 2015년에는 2,551개교의 연구·희망학교를 운영하였다. 2015년 8월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시안)을 발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유학기제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학기제를 반영하여 고시하였다.11)

2016년부터는 전국에서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여 총 3,213개교에서 운영하였고, 2017년도 마찬가지로 전국 3,208개교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시행하였으며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를 406개교로 운영하였다.

8) 정광순(2013). 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 대비 역량 중심 교과통합수업 설계 방안 제안. 「통합교육과정연구」. 7(3). p.3.

9) 신철균, 김은영, 황은희, 송경오, 박민정(2014).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연구보고 RR 2014-17.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pp.41-46.

10) 교육부(2017).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 pp.1-10.

11) 교육부(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안). p.2.

자유학기제 확대·발전이 현 19대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2017년 9월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 시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자유학기제를 2학기동안 운영하는 자유학년제가 진행되었다. 2018년부터 희망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1,470개교에서 시범 운영하여 전체 학교의 45.8%가 자유학년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자유학기 이후에 일반 학기에서 1개 학기 이상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살려 운영하는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를 2017년부터 시범 운영 하였다. 2018년에도 마찬가지로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가 시행되었고, 연계학기 대상 학년과 운영 학기는 희망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되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및 연계 자유학기제를 각 학교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 경기도와 강원도, 광주광역시는 전면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각 시·도의 학교에서는 학교 상황과 실정에 맞춰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와 연계학기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유학기제가 점진적으로 확대·발전되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

라.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시행학기에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교과수업과 자유학기 활동을 한다. 오전 교과수업 시간에는 일반 학기와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음악, 도덕 등의 수업으로 편성되는데, 학생들이 능동적 참여를 할

수 있는 토론이나 프로젝트 학습 등의 방향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관찰평가, 학생 스스로 자신을 평가해보는 자기 성찰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으로 이루어진다. 오후에는 자유학기 활동이 진행되는데 진로 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의 4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의 구성은 각 학교의 실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한다.¹²⁾

자유학기제는 170시간 이상의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하고,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를 활용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자유학기 활동은 각 학교의 여건에 따라 교과별 배당 시간의 20% 범위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의 51시간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¹³⁾

자유학년제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활용하여 주제선택, 진로탐색, 예술·체육, 동아리 활동의 운영 시간을 연간 221시간 이상으로 시행한다. 운영시수의 예시를 들면, 70시간(1학기) + 51시간(2학기), 102시간(1학기) + 119시간(2학기) 등으로 구성할 수 있고 운영시수와 학기당 개설 영역은 각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에서는 중점연계형 자유학기 활동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이용하여 51시간 이상 편성하여 운영한다. 연계학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2개 이상의 중점연계 활동을 운영하고, 학생중심으로 수업을 개선한다는 뜻이 반영된 주제선택 활동을 포함할 것을 권장한다.¹⁴⁾

12) 교육부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꿈끼 사이트 (<https://www.ggoomggi.go.kr>)

13) 교육부(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안). p.11.

14) 교육부(2017).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 pp.9-10.

2. 자유학기 활동과 음악 프로그램

자유학기 활동은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의 4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로탐색 활동은 진로검사나 진로체험 및 직업탐방, 진로 포트폴리오 제작 활동, 여러 분야의 전문 직업 종사자 초청강연 등의 활동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학생 각자의 적성에 대하여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고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설계해볼 수 있다.¹⁵⁾

음악 프로그램은 4가지의 자유학기 활동 중에서 대부분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에 편성된다. 주제선택 활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수업으로, 학생의 흥미와 관심사에 맞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과와 연계된 프로젝트 수업이나 인성교육, 다문화교육, 경제교육 등의 범교과적 주제를 다루는 활동이다. 예를 들면 드라마와 사회, 융합인재교육, 행복교육, 헌법과 법질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편성된다. 주제선택 활동에서 개설되는 음악 프로그램으로는 교과와 연계된 프로젝트 수업 형태의 ‘합창으로 만나는 미니뮤지컬’, 음악과 국어가 연계된 ‘나는 작사가다’, ‘생활속의 음악’ 등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¹⁶⁾

예술·체육 활동은 뮤지컬이나 캘리그래피, 오케스트라, 축구 등의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잠재되어 있던 학생의 예술적·체육적인 소질을 찾게 하는 활동으로 진행된다.¹⁷⁾ 예술·체육활동에는 많은 음악 프로그램들이 개설되는데, 예를 들면 ‘바이올린’, ‘실용음악반’, ‘보면서 배우는 클래식 감상반’, ‘우쿨렐레반’ 등이 운영된다.

예술·체육 활동에서 음악 프로그램은 다양한 유형의 음악 수업 중 학생들

15) 교육부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꿈끼 사이트 (<https://www.ggoomggi.go.kr>)

16) 김민정 외(2016). 자유학기제 교과 연계 주제선택 활동 사례집: 음악, 미술, 체육. 연구자료 CRM 2016-16-5.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7) 교육부(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안). p.8.

이 선호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관심분야와 적성을 탐구해보고 음악과 연관된 진로를 탐색해보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타 교과와의 융합 활동을 하면서 창의적인 사고와 새로운 음악적 지식을 쌓을 수 있으며 기존 음악 교과의 내용을 확장하거나 다양한 교수법과 체험중심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음악을 삶 속에서 향유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음악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교 밖에서도 음악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¹⁸⁾ 서울 동작중학교와 부산 백양중학교(2014)의 경우, 지역사회의 전문 강사 지원이나 교외 문화 예술·체험의 날 운영 등을 통한 지역 사회 연계의 예시로 들 수 있다.¹⁹⁾

동아리 활동은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자치 능력 및 문제 해결력, 예술적 안목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진행 프로그램으로는 힙합, 사진, 방송 댄스, 천체 관측 등이 있으며 선택한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다.²⁰⁾ 동아리 활동에서도 음악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데, 그 예로 '기악합주반', 뮤지컬, 영화, 연극, 미술 등의 다양한 대중문화를 체험하고 서로의 감상을 나뉘보는 '대중문화 체험반', '밴드부' 등이 있다.

앞서 제시된 것처럼 자유학기 활동 중, 음악 프로그램들은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에 편성되고 있다. 자유학기 활동은 각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3가지 활동 영역에서 음악 프로그램이 편성되는 것은 학생들이 다양한 음악적 경험과 음악 활동중심의 체험을 얻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18) 교육부·경상북도교육청(2017). 핵심역량 중심 자유학기 예술·체육 활동 운영 및 평가 도움자료.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pp.7-8.

19)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자유학기활동 운영 매뉴얼.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p.46.

20) 서울시교육청(2018). 2018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 계획. pp.10-11.

3. 해외사례

가.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

아일랜드의 중등교육과정은 주니어 사이클(Junior Cycle)의 중학교 3년 과정과 시니어 사이클(Senior Cycle)의 고등학교 2년 과정으로 나뉘고, 그 사이에 전환학년제가 1년 동안 시행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²¹⁾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아일랜드 전환학년제의 시행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일랜드 정부는 교육예산 부족을 계기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축소시키고, 교육과정은 주니어 사이클과 시니어 사이클의 두 과정으로 운영하며 각 과정의 마지막에는 졸업시험을 보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린 나이부터 입시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주니어 사이클과 시니어 사이클 과정 사이에 전환학년제를 두어서 학생들이 자신의 직업과 진로를 탐색해보고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전환학년제가 시행되었다.²²⁾

전환학년 시행 기간에는 학생들이 모의 창업, 미니가구 제작, 영화창작 등의 여러 체험활동이나 프로젝트 수업 등의 다양한 교수법을 통한 교과수업을 한다. 또한, 전환학년제를 시행할 때에는 적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각 학생들의 강점과 적성을 파악하여 진로를 탐색할 수 있고, 학생들이 보수에 국한된 진로를 생각할 때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 좀 더 깊고 다양하게 생각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²³⁾

21) 김나라·방재현·최지원(2013).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분석을 통한 한국 진로교육에의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23(1). p.150

22) 양소영(2014). **꿈의 수업 자유학기제, 아일랜드에서 찾다**. 서울: 미디어숲. pp.38-40.

23) 양소영(2014). 위의 책. pp.38-46.

나. 덴마크의 애프터스쿨(Efterskole)

덴마크의 애프터스쿨은 기숙형 자유학교로서, 보통 14-18세 연령층의 8-10학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이다. 애프터스쿨에서는 음악이나 미술 체육 등의 감성적인 예체능 교육과 다양한 활동들이 주를 이루고,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의견에 따라 교수법 및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수업 전반에 대한 운영과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이루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애프터스쿨의 독특한 점은 학생들과 교사가 계속 함께한다는 점이다. 앞서 애프터스쿨이 기숙형 자유학교라고 언급했듯이, 수업 이외에 부분에서도 교사는 학생을 관리 감독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일반 공립 학교의 사제 관계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²⁴⁾

애프터스쿨은 학생들에게 삶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며 탐색해볼 수 있고, 다음 단계의 학교교육을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²⁵⁾

다. 스웨덴의 프라오(PRAO)

스웨덴어 Praktiskarbetslivsorientering의 줄임말인 프라오는, 초등학교 8학년과 9학년 사이에서 시행되는 2주간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프라오는 의무 교육과정이 발전하는 직업 세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회의적인 견해에 대한 새로운 방안으로 나타났다. 프라오 활동은 진로지도상담가가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프라오 활동에 대한 목적과 취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

24) 정영근 · 이명준 · 김진숙 · 이근호 · 옥현진(2014).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보고 RRC 2014-5.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pp.169-180.

25) 김나라 · 최지원(2014).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과 과제 -아일랜드 · 덴마크 · 스웨덴 ·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7(3). pp.207-208.

하여 알려준다. 도입 초기에는 진로 체험에 대한 구체적 지식이 없던 교사들이 프라오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감을 가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들에게 프라오 활동을 제공하는 기업에 직접 방문하게 하여 지도하기에 적절한 정보들을 얻게 하고 교사를 위한 연수들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프라오 활동을 제공하는 기업의 감독관들에게도 학생들에게 일터에 관한 정보들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감독관 연수 등을 실시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프라오 활동을 하며 학교에서 학습을 해야 하는 이유와 미래의 취업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또, 프라오 활동을 통해 직업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진로 결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²⁶⁾

앞서 제시된 해외사례의 덴마크 애프터스쿨처럼 우리나라 자유학기제 시행학기에는 일반학기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중심의 수업들이 진행된다. 또한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스웨덴의 프라오와 같이 학생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탐색할 수 있으며 직업에 대한 다양한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26) 김나라 · 최지원(2014). 위의 책. pp.208-210.

4. 선행 연구 고찰

가. 자유학기제 운영 현황 연구

조슬기²⁷⁾는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의 실태 및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조사를 하였고, 연구를 통해 자유학기제 음악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과 경기지역 총 413개교였고,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음악 교사 5명과 자유학기제를 직접 경험해 본 서울·경기지역 551명의 중학교 2학년이었다. 연구 결과는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에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학생의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주는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의 개발과 각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을 위한 환경적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더 다채로운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이를 위한 교사연수나 컨설팅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박수현²⁸⁾은 2015년 대구광역시 중학교 자유학기제 거점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과 자유학기 활동의 음악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과 음악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대구광역시 거점학교의 자유학기제는 32.5개교가 1학년 2학기에 가장 많이 진행되었고, 16개교가 예술·체육 활동의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여러 학교가 1인 1악기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주제별

27) 조슬기(2017). 서울경기 지역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의 실태 및 인식 조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8) 박수현(2017). 중학교 자유학기제 음악프로그램 분석: 2015년 대구광역시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활동 수업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리코더나 킥타와 같은 기악 영역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가창 영역에서는 합창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과 교사의 수급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 위주의 수업에 대한 개선점이 있어야 한다고 여겼다.

강해인²⁹⁾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중학교 음악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였고,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구성과 자유학기 음악 교과 수업에 대한 인식 및 자유학기 활동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서울, 경상, 충청, 전라도 지역의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결과에서 음악교사가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수업의 내용이 기악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 활동에서는 진로탐색 활동과 주제선택 활동이 음악과 연관된 프로그램이 없는 학교가 많았고, 예술·체육 활동과 동아리 활동에서의 음악 프로그램은 악기 배우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았다. 또한, 자유학기 음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언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전문 외부 강사의 섭외를 위하여 지역 인프라 확충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신지원³⁰⁾은 2015년 서울지역 자유학기제 연구·희망학교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음악교육현황에 대해 설문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자유학기제가 다른 교육과정과 차별화되는 점은 자율 프로그램의 운영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 이유로는 대부분의 자율 프로그램이 외부강사가 투입되어 수업을 하고, 음악교사와 외부강사가 함께 수업에 대한 연구를 하기가 어려우며 수업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얻기가 힘든 점을 들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자율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외부강사들의 질 관리 및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보았다. 또한, 자율 프로그램의 수업자료를 교사가 제작한 유인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았고, 자료 제작을

29) 강해인(2018). 자유학기제에 대한 중학교 음악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30) 신지원(2016). 2015년 서울형 자유학기제 연구·희망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현황 조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할 때 교사들이 주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율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업 자료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하남영³¹⁾은 전국의 42개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1차 운영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음악에 '꿈과 끼'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어떤 음악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를 하였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서 학생 선택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교 중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는 13개 학교였다. 또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 활동은 4개 학교에서 운영한 뮤지컬이 가장 높았으며 킥타, 실용음악, 영화음악은 2개 학교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현재 학생들의 음악 활동에 대한 수요가 실용음악 쪽으로 더 향하고 있지만 뮤지컬, 기타, 보컬 등의 실용음악 프로그램과 국악 및 클래식 음악 활동이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활동이 포함된 연구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위의 선행 연구들을 보면 구체적인 자유학기제의 운영 현황이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자유학기제에서 시행되고 있는 음악 프로그램들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자유학기제의 프로그램에는 어떤 점들이 반영되어야 좋을지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전국 각 시·도의 자유학기제에서 어떤 음악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31) 하남영(2015). 자유학기제 제 1차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한 음악 프로그램 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대전시, 울산시, 광주시, 대구시, 부산시,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제주도의 13개 시·도에서 각 30개교와 세종시 21개교로 무작위로 선정한 총 411개교의 중학교이다.

2. 연구 기간

본 연구의 기간은 준비, 실행, 정리의 세 단계 절차로 운영되었다. 먼저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문헌을 연구하였고, 학교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411개교의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2019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수집한 자료의 분석을 하여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 현황조사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전국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 현황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학교 알리미 사이트(<https://www.schoolinfo.go.kr>)를 연구도구로 사용하였다. 학

교 알리미 사이트는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학생의 입학 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등을 게시한 홈페이지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를 기반으로 하여 학생·교원현황·시설·학교폭력발생현황·위생·교육여건·재정상황·급식상황·학업성취 등 학교에 관련된 공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³²⁾ 학교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시정보' 탭의 공시자료 검색을 선택하고 공시항목으로 교육활동 중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선택한다. 그리고, 시/도 항목에서 해당하는 시·도 와 시·군·구를 선택하면 포함된 중학교들의 목록이 나타난다. 각 중학교의 운영계획서 파일을 선택하여 자유학기제 활동 운영 시수 및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명과 활동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등을 취합하여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 현황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였다.

4. 연구 방법

본 연구는 13개 시·도의 각 30개교와 세종시 21개교 총 411개교의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내용 분류 및 현황 분석을 하였다. 먼저 각 시·도의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2018년 자유학기제 운영 자료들을 참고하여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에 비중을 두는 시·도를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로 조사할 시·도를 정리 하였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연구한 시·도는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울산시,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이며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을 연구한 시·도는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대구시, 광주시이다. 또한, 충청도에서 충북은 자유학기

32) 학교 알리미사이트 (<https://www.schoolinfo.go.kr>)

제, 충남은 자유학년제로 조사하였고 세종시는 21개교 중 17개교는 자유학기제, 4개교는 자유학년제로 연구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각 학교의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명과 프로그램의 영역, 프로그램 학습 내용, 주제 선택 및 예술·체육 활동 구분, 주제 선택 및 예술·체육 시수 등으로 구분하였다. 자유학기 활동 중에서 동아리 활동은 학교별 운영계획서 자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제외하고, 주제 선택 및 예술·체육 활동의 음악 프로그램과 시수를 조사하였다.

프로그램의 영역별 분류를 할 때에는 각 프로그램을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생활화, 그 외 영역으로 나누었다. 음악극이나 뮤지컬과 같이 종합예술 음악 형태의 프로그램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중 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 영역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한 프로그램에 가창-감상과 같이 2가지 이상의 영역이 함께 포함되어 있거나 타 교과와의 연계가 있는 프로그램도 그 외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뮤직비디오·음악 방송 프로그램·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편곡 프로그램 사용, 음악관련 직업 탐색 등의 프로그램은 생활화 영역으로 포함하였다.

음악 프로그램명으로 분류할 때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명을 가진 유사 프로그램은 하나의 프로그램 범주로 통일하였다. 예를 들면, 음악 감상의 범주에는 오페라, 영화음악 감상 등이 포함되었고, 기악합주에는 북웨커-알토리코더와 같이 한 프로그램에서 2가지 이상의 악기를 학습하는 프로그램과 앙상블, 밴드, 오케스트라 등이 속해있다. 또한, 통합에는 음악감상과 우쿨렐레처럼 한 프로그램에서 2가지 이상의 영역을 함께 학습하는 경우와 연극-음악-문학, 체육-음악-미술 등의 타 교과와의 연계 프로그램이 포함되었고, 영상 제작에는 뮤직비디오, 음악 콘텐츠 제작, 음악 방송 프로그램, 음악 드라마가 속해있다. 그리고 모듬북, 타악 퍼포먼스, 컵타, 신체악기 프로그램은

난타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고 싱어송라이터, 나만의 음악 만들기, 컴퓨터 악보 프로그램 사용 등의 프로그램은 작사 작곡의 범주로 포함하였다.

자세한 내용 분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음악 프로그램명 유사 프로그램 분류 및 내용

분 류	내 용
음악감상	영화음악 감상, 오페라 감상
기악합주	앙상블, 밴드, 오케스트라, 북웨커-알토 리코더, 가야금-단소
영상 제작	뮤직 비디오, 음악 콘텐츠 제작, 음악 방송 프로그램, 음악 드라마, 라디오 제작
통합	체육-음악-미술, 연극-음악, 음악감상과 우쿨렐레, 노래-악기연주-음악감상-창작
음악직업 탐색	클래식 전문 해설가, 음악감독, 작사가 등의 음악관련 직업 탐색
난타	난타북, 모듬북, 타악 퍼포먼스, 킵타, 신체악기
건반	키보드, 롤피아노, 코드 피아노, 피아노 반주법
스마트기기 활용	앱 활용 작곡 및 연주
뮤지컬	뮤지컬, 음악극
사물놀이	사물놀이, 풍물놀이, 북(장단), 장구
작사 작곡	작곡, 싱어송라이터, 나만의 음악 만들기, 광고음악 편곡 및 작곡, 컴퓨터 악보프로그램 사용
국악 가창	국악동요, 각 지방 민요, 판소리, 제주어 동요

5.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전국 13개 시·도의 각 30개교와 세종시 21개교 총 411개교의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서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집한 자료를 세부 항목으로 나누고 Excel 201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항목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장르별 음악 프로그램 분석

전국 14개 시·도 411개교의 총 1013개 음악 프로그램을 국악, 서양음악, 대중음악, 교육용 악기, 그 외 음악 프로그램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국악 프로그램에는 사물놀이, 가야금, 소금, 해금, 국악 가창, 단소, 피리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대중음악 프로그램에는 기타, 보컬, 드럼 등과 같이 실용음악에 편성되는 악기와 노래와 춤, 연극으로 이루어지는 뮤지컬 프로그램 등으로 분류하였다. 또, 교육용 악기 프로그램은 비교적 학생들이 접근하기 쉽고 학습하기 쉬운 악기의 범주로 나누었다. 교육용 악기 프로그램에는 우쿨렐레, 오카리나, 난타, 리코더, 기악합주, 핸드벨, 하모니카, 북웨커, 쟈뎀, 피페, 소고, 카혼 등이 포함되어 있다.

5가지로 분류한 장르별 음악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국악 프로그램은 총 66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고 서양음악 프로그램은 135개, 대중음악 프로그램은 278개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교육용 악기 프로그램은 376개, 그 외 음악 프로그램은 158개로 나타났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용 악기 프로그램(376개)이 37.1%의 비율을 차지하며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었고 그 뒤를 이어 대중음악 프로그램(278개)이 27.4%로 진행되고 있었다. 가장 적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총 66개로 진행되는 국악 프로그램으로, 6.5%의 비율로 나타났다.

제시된 표를 통해 그 외 음악 프로그램(158개)이 서양음악과 국악 프로

그램보다 더 운영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가창, 기악, 감상, 창작 등 2가지 이상의 영역이 포함된 프로그램과 타 교과와의 연계 프로그램이 속해있는 통합 프로그램을 그 외 음악 프로그램의 범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그 외 음악 프로그램이 서양음악과 국악 프로그램보다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각 프로그램을 지역별로 비교해봤을 때 국악 프로그램은 서울시(12개)에서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었다. 서양음악 프로그램은 경기도(20개)에서 많이 진행되며 반면에 강원도(3개), 경상도(2개)에서는 적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용 악기 프로그램은 경기도(38개), 인천시(36개)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시·도에서 1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음악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42개로 가장 많이 구성되었고, 제주도와 대구시는 8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음악 프로그램은 대구시가 가장 많은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국악, 서양음악, 대중음악, 교육용 악기, 그 외 음악 프로그램
분류

시·도	프로그램				
	국악	서양음악	대중음악	교육용 악기	그 외
서울	12	9	42	29	16
경기	7	20	31	38	5
인천	1	14	23	36	9
충청	3	5	20	29	12
강원	3	3	16	32	7
세종	5	9	20	17	9
부산	6	11	26	31	13
대구	3	10	8	28	23
광주	5	14	11	26	17
대전	8	11	16	22	9
전라	3	5	11	22	10
경상	4	2	16	28	8
울산	2	15	27	28	13
제주	4	7	8	10	7
합계	66	135	278	376	158
비율(%)	6.5	13.3	27.4	37.1	15.6

가. 국악 프로그램

국악 프로그램은 총 66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사물놀이 프로그램이 51.5%로 가장 많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시·도별로 봤을 때 경기도가 6개로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가야금 프로그램이 19.7%로 편성되며 지역별로 봤을 때, 대전시에서 5개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국악 프로그램에는 사물놀이, 가야금, 소금, 해금, 단소, 기악합주, 피리, 국악 가창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을 살펴봤을 때, 거의 기악 영역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악 프로그램 중에서 유일하게 가창 영역의 국악 가창 프로그램이 3개로 나타나는데, 제주도에서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와 관련된 활동 등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제주어 동요나 제주 민요 등의 가창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기악 합주 프로그램에는 가야금-단소와 같이 한 프로그램에서 2가지 이상의 악기를 학습하는 프로그램 등이 속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국악 프로그램

시·도	국악 프로그램							
	사물놀이	가야금	소금	해금	단소	국악가창	기악합주	피리
서울	5	2	3	1				1
경기	6		1					
인천	1							
충청	1				1		1	
강원	2	1						
세종		2		1	1		1	
부산	5			1				
대구	2	1						
광주	4		1					
대전	2	5		1				
전라	1		1			1		
경상	2	1			1			
울산	1	1						
제주	2					2		
합계	34	13	6	4	3	3	2	1
비율 (%)	51.5	19.7	9.1	6.1	4.5	4.5	3.0	1.5

나. 서양음악 프로그램

서양음악 프로그램은 7개의 프로그램으로 분류 하였고, 이 중 가장 많이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합창(44개)이며 32.6%의 비율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봤을 때, 합창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모두 운영하고 있었다.

기악합주 프로그램은 28.1%로 총 38개의 프로그램이 구성되었고 앙상블, 현악기 합주, 금관악기 합주, 오케스트라 등의 프로그램이 속해 있다. 지역별로 봤을 때, 기악합주 프로그램은 경기도(7개)가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으며 경상도를 제외하고 모든 시·도에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바이올린 프로그램도 3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기악합주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경상도 이외의 각 시·도에서 대부분 비슷하게 바이올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서양음악 프로그램도 국악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기악합주, 바이올린, 플룻, 실로폰 등의 기악영역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상 영역의 음악 감상 프로그램에는 영상 속 클래식 음악 감상, 오페라 감상반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음악 감상 프로그램은 총 12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8.9%로 운영되고 있었다.

가창 영역 프로그램에서는 앞서 제시한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합창 프로그램이 32.6%로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인 성악 프로그램은 3.0%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서양음악 프로그램

시·도	서양음악 프로그램						
	합창	기악합주	바이올린	음악감상	플룻	성악	실로폰
서울	3	3	2	1			
경기	6	7	5	2			
인천	4	5	3	1		1	
충청	3	1	1				
강원	1	1	1				
세종	3	3	1		2		
부산	3	2	1	2		3	
대구	3	3	3				1
광주	2	6	4	2			
대전	4	2	3	1	1		
전라	1	1	2		1		
경상	2						
울산	6	2	3	3	1		
제주	3	2	1		1		
합계	44	38	30	12	6	4	1
비율 (%)	32.6	28.1	22.2	8.9	4.4	3.0	0.7

다. 대중음악 프로그램

대중음악 프로그램은 총 278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기타 프로그램이 80개로 28.8%의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모든 시·도에서 기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뮤지컬이 71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25.5%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12개, 경기도에서 11개로 뮤지컬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었다.

대중음악 프로그램에서는 가창 영역과 기악 영역, 창작 영역, 감상 영역이 포함된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었다. 기악 영역 프로그램들은 기타, 기악합주, 건반, 드럼 등으로 진행되었고, 기악 합주 프로그램에는 밴드반 프로그램과 기타-드럼과 같이 한 프로그램 안에서 2가지 이상의 악기를 학습하는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8.3%로 진행되었다.

감상 영역인 음악 감상 프로그램에서는 영화음악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한 프로그램들이 20개로 7.2%의 비율로 진행되었다. 창작 영역에서는 랩 프로그램, 컴퓨터 악보 및 작곡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곡하거나 간단한 형태의 자신만의 곡을 만들어보는 활동이 있는 작사 작곡 프로그램이 각각 1.4%와 6.5%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대중음악 프로그램

시·도	대중음악 프로그램									
	기타	뮤지컬	보컬	기악 합주	음악 감상	작사 작곡	건반	드럼	아카 펠라	랩
서울	10	12	7	1	4	1	3	1	2	1
경기	4	11	7	1	2	2	2			2
인천	5	7	3		4	1		1	1	1
충청	8	6	1	2			1	1	1	
강원	7	2	1	1	1	2	1	1		
세종	6	7	2	1		3			1	
부산	9	8	3	3	1	2				
대구	2	2	1			2		1		
광주	5	1	1	2	1	1				
대전	2	4	1	2	2	2	3			
전라	4	1	1	2	2	1				
경상	5	3	1	3		1	2	1		
울산	9	6	5	2	3		1	1		
제주	4	1		3						
합계	80	71	37	23	20	18	13	7	5	4
비율 (%)	28.8	25.5	13.3	8.3	7.2	6.5	4.7	2.5	1.8	1.4

라. 교육용 악기 프로그램

교육용 악기 프로그램은 총 376개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것은 국악, 서양음악, 대중음악, 교육용 악기 프로그램, 그 외 음악 프로그램의 5가지 장르별 음악 프로그램 중에서 교육용 악기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운영된 것을 의미한다.

교육용 악기 프로그램 중에서는 우쿨렐레가 총 130개로 34.6%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모든 시·도에서 우쿨렐레 프로그램을 5개 이상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난타북, 타악 퍼포먼스, 킥타, 신체악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 난타 프로그램이 총 84개로 22.3%의 비중으로 이루어졌으며,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 구성되어 있었다. 오카리나도 69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18.4%로 많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세종시 이외의 각 시·도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붐웨커나 다른 나라의 민속 타악기인 쟈메, 카혼, 그리고 피페, 소고 등의 프로그램은 그 외로 묶어서 제시하였다. 그 외 프로그램은 2.7%의 적은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프로그램들이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에서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교육용 악기 프로그램

시·도	교육용 악기 프로그램							
	우쿨렐레	난타	오카리나	기악합주	리코더	핸드벨	하모니카	그 외
서울	7	13	2	2	1	3		1
경기	9	10	7	6	1	1	1	3
인천	14	4	7	3	1	2	2	3
충청	10	6	8	3	1		1	
강원	11	8	6	2	2	1	1	1
세종	8	4		5				
부산	10	9	4	4	1	2		1
대구	10	4	7	3	3	1		
광주	8	2	10	4	1			1
대전	10	4	6	2				
전라	9	6	4	2	1			
경상	12	3	5	4	2	1	1	
울산	7	11	2	4	3	1		
제주	5		1	3		1		
합계	130	84	69	47	17	13	6	10
비율 (%)	34.6	22.3	18.4	12.5	4.5	3.5	1.6	2.7

마. 그 외 음악 프로그램

그 외 음악 프로그램은 총 158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그 중 뮤직 비디오 · 음악 방송 프로그램 · 음악 드라마 · 음악 콘텐츠 · 라디오 제작을 하는 영상 제작 프로그램이 총 13개로 8.2%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리고, 앱을 이용하여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해보는 스마트기기 활용 프로그램, 클래식 전문 해설가 · 음악감독 · 작사가 등의 음악과 연관이 있는 직업을 탐색해보는 음악직업 탐색 프로그램 등이 각각 1.3%, 3.2%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그 외 음악 프로그램

시·도	그 외 음악 프로그램				
	통합	영상제작	음악직업 탐색	스마트기기 활용	코다이 손기호
서울	15	1			
경기	2	1	1	1	
인천	7		2		
충청	6	3	2	1	
강원	7				
세종	9				
부산	11	2			
대구	22				1
광주	16	1			
대전	9				
전라	10				
경상	6	2			
울산	10	3			
제주	7				
합계	137	13	5	2	1
비율 (%)	86.7%	8.2%	3.2%	1.3%	0.6%

통합 프로그램이 86.7%로 그 외 음악 프로그램에 속한 다른 프로그램보다 많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통합 프로그램에는 가창-기악과 같은 2가지 이상의 영역을 함께 학습하는 프로그램과 연극-음악-문학, 체육-음악-미술 등의 타 교과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속해 있다. 그래서, 통합 프로그램을 국악, 서양음악, 대중음악의 어느 한 장르로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외 음악 프로그램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통합 프로그램 분류

통합 프로그램 분류	내 용
2가지 이상 영역	가창- 악기연주-시창청음-음악사, 음악감상-우쿨렐레, 합창-악기연주-음악회 기획 및 발표, 가창-오카리나-우리음악 홍보동영상 창작- 음악극 창작
타 교과 연계	체육-음악-미술, 연극-음악, 음악-체육, 국어-음악 클래식-인문학, 뮤지컬-시각예술, 과학-음악

2. 영역별 음악 프로그램 분석

모든 음악 프로그램을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생활화, 그 외 영역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총 1013개의 음악 프로그램 중, 기악 프로그램은 630개로 62.2%의 비율을 차지하며 모든 프로그램 영역 중 가장 많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23개) 이외의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기악 프로그램을 30개 이상으로 편성한 것을 제시된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창 영역은 총 93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경기도(13개), 서울시(12개) 등에서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창작 영역이나 감상, 생활화 영역을 살펴보면 창작 영역은 1.4%, 감상 영역은 2.9%, 생활화 영역은 1.7%의 비율로 운영되었고, 이 영역 프로그램들은 기악 프로그램에 비교하면 상당히 적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기악 영역의 프로그램들을 타 영역보다 많이 접하며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뮤지컬과 같은 극음악은 종합예술음악으로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한 영역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외 영역에 포함하였다. 가창 - 감상 프로그램, 오페라 감상 - 리코더 연주 - 뮤직비디오 제작과 같이 한 프로그램에서 두 가지 이상의 영역을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 코다이 손기호 프로그램과 같이 음악과 신체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프로그램, '문학과 음악의 콜라보'(국어-음악), '공상과학으로의 음악여행'처럼(음악-과학) 타 교과와의 연계가 있는 프로그램 등은 그 외 영역으로 분류 하였다. 그 외 영역은 총 230개로 22.7%의 비중으로 운영 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영역별 음악 프로그램

시·도	영역별 음악 프로그램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생활화	그 외
서울	12	59	2	5	1	29
경기	13	64	2	2	2	18
인천	9	51	2	3	2	16
충청	5	45			5	13
강원	2	47	1	1	1	9
세종	6	33	3			18
부산	9	51	1	3	1	22
대구	4	41	1		3	23
광주	6	49		3	1	17
대전	5	44	1	3		13
전라	3	31		2	1	14
경상	3	43	1			11
울산	11	49		7		19
제주	5	23				8
합계	93	630	14	29	17	230
비율 (%)	9.2	62.2	1.4	2.9	1.7	22.7

3. 주제 선택, 예술·체육활동 및 시수 분석

자유학기 활동은 크게 주제 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활동으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은 주제 선택 활동과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은 운영계획서 자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제외한 주제 선택 및 예술·체육 활동의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주제 선택 활동과 예술·체육 활동의 프로그램을 비교해보면, 주제 선택 활동 12.5%, 예술·체육 활동 87.5%로 예술·체육 활동에 음악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자료를 통해 전국 각 시·도의 학교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주제 선택 활동보다는 대부분 예술·체육 활동에 많이 운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표 10>과 같다.

<표 10> 주제 선택, 예술·체육활동

시·도	활동 구분	
	주제 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서울	28	80
경기	10	91
인천	15	68
충청	5	63
강원	3	58
세종	3	57
부산	14	73
대구	15	57
광주	17	59
대전	8	58
전라	1	50
경상	0	58
울산	7	79
제주	1	35
합계	127	886
비율(%)	12.5	87.5

그리고, 자유학기제 운영 시수는 각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편성된다. 본 연구의 대상 학교들의 주제 선택 활동과 예술·체육활동의 시수도 17시수부터 102시수까지 다양하게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 선택 활동과 예술·체육 활동의 시수 중에서 68시수는 44.5%로 가장 많이 운영되는 시수로 나타났다. 51시수도 32.3%로 많이 편성되었고, 34시수는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 각 시·도의 학교에서 구성되어 20.7%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외의 17시수, 85시수는 각각 10개, 14개 프로그램에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 주제 선택, 예술·체육활동 시수

시·도	주제 선택 및 예술·체육활동 시수					
	17	34	51	68	85	102
서울		21	40	44	2	1
경기	5	37	33	26		
인천		40	15	24	4	
충청		19	17	32		
강원	1	13	26	19	2	
세종	1	3	35	20	1	
부산		15	20	51	1	
대구	1	19	5	47		
광주	2	18	29	25	2	
대전		5	21	40		
전라		7	27	17		
경상			21	37		
울산		12	23	51		
제주		1	15	18	2	
합계	10	210	327	451	14	1
비율(%)	1.0	20.7	32.3	44.5	1.4	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의 내용 및 현황을 조사하여 음악교육 연구의 기본 자료가 되고, 음악 프로그램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전국 14개 시·도의 411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 항목으로 범주화하고 Excel 201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자료 분석을 통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된 자유학기제의 장르별 프로그램에서는 국악 프로그램이 총 66개로 가장 적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교육용 악기 프로그램이 376개로 가장 많이 편성되었다. 이는 우쿨렐레, 난타, 오카리나, 리코더 등의 교육용 악기 프로그램이 다른 악기에 비해 비교적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둘째, 자유학기제의 영역별 프로그램 중에서는 기악 프로그램이 62.2%로, 모든 프로그램 영역 중 가장 많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연구 결과를 통해 국악 프로그램에서는 사물놀이, 가야금, 소금 등의 악기와 서양음악 프로그램에서는 현악기 및 금관악기 합주, 오케스트라, 그리고 교육용 악기 프로그램에서는 우쿨렐레, 난타, 오카리나 등의 프로그램이 편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영역보다 기악 영역이 학생들이 학습하기에 흥미가 있고, 악기를 통해 실용 중심의 음악 교육을 쉽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셋째, 자유학기제의 주제 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및 시수를 살펴보

면 예술·체육 활동에 87.5%로 더 많은 음악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었고, 시수 편성은 각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되지만 68시수가 44.5%로 가장 많이 운영되는 시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의 결론을 토대로 자유학기제의 음악 프로그램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악 영역 외에 가창, 창작, 감상 등의 타 영역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악 프로그램은 62.2%로 가창, 창작, 감상 등의 다른 영역들보다 더 많이 운영되고 있었다.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기악 영역에만 치중된 프로그램을 구성하지 않고 타 영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절히 편성을 하면,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와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위하여 국악 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해야 한다. 연구 결과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장르별 프로그램에서 국악 프로그램이 총 66개로 가장 적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양음악(135개), 대중음악(278개),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교육용 악기(376개)와 비교하면 국악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운영되고 있다.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에 국악 프로그램을 현재보다 더 많이 편성하면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 중심의 국악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타 교과와의 국악 융합 수업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이 국악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에 기악 영역 외 가창, 창작, 감상 등의 타 영역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들이 구성되고, 국악 프로그램이 더 많이 편성되어 학습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면 학생들은 자유학기제 운영 취지에 부합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얻고 본인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안).
- 교육부(2015). 음악과 교육과정. 별책 12. 고시 제 2015-74호.
- 교육부(2017).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
- 교육부·경상북도교육청(2017). 핵심역량 중심 자유학기 예술·체육 활동 운영 및 평가 도움자료.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자유학기활동 운영 매뉴얼.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2018). 2018학년도 자유학년, 연계학기 운영학교 현황.
-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2017). 2018학년도 자유학년제 운영 가이드(시안).
- 대구광역시교육청(2018). 2018학년도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운영 및 지원 계획.
- 대구광역시교육청(2018). 2018학년도 (대구) 자유학년/자유학기제 운영 학교명단.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자유학기제지원센터(2018). 2018년 대전광역시 중학교 자유학기(년)제 운영 현황.
- 부산광역시교육청(2018). 2018학년도 자유학기(년)제 운영학교 현황.
- 서울시교육청(2018). 2018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 계획.
- 전라북도 교육청 진로진학센터(2018). 2018년 전북형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 안내.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8). 2018학년도 자유학기(학년)제 운영 지원 계획.

- 김봉환 외(2013). **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신재한 · 이윤성(2017). **자유학기제 운영 길라잡이: 자유학기제 연간 매뉴얼**. 파주: 교육과학사.
- 양소영(2014). **꿈의 수업 자유학기제, 아일랜드에서 찾다**. 서울: 미디어숲.
- 김나라 · 방재현 · 최지원(2013).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분석을 통한 한국 진로 교육에의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23(1). pp.147-169.
- 김나라 · 최지원(2014).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과 과제 -아일랜드 · 덴마크 · 스웨덴 ·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7(3). pp.199-223.
- 김민정 외(2016). **자유학기제 교과 연계 주제선택 활동 사례집: 음악, 미술, 체육**. 연구자료 CRM 2016-16-5.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신철균 · 김은영 · 황은희 · 송경오 · 박민정(2014).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연구보고 PR 2014-17**.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정광순(2013). **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 대비 역량 중심 교과통합수업 설계 방안 제안**. 「통합교육과정연구」. 7(3). pp.1-30.
- 정영근 · 이명준 · 김진숙 · 이근호 · 옥현진(2014).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보고 RRC 2014-5.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pp.169-180.
- 강해인(2018). **자유학기제에 대한 중학교 음악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민경(2019). **대구지역 중학교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 인식 및 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유민(2019). 자유학기제를 위한 융합형 음악창작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수현(2017). 중학교 자유학기제 음악프로그램 분석: 2015년 대구광역시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신지원(2016). 2015년 서울형 자유학기제 연구·희망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현황 조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조슬기(2017). 서울·경기 지역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의 실태 및 인식 조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하남영(2015). 자유학기제 제 1차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한 음악 프로그램 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부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꿈끼 사이트 (<https://www.ggoomggi.go.kr>)

학교 알리미 사이트 (<https://www.schoolinfo.go.kr>)

ABSTRACT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Nationwide Free Semester Music Program in Korea

Kim, Juhee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University

This study's purpose is to organize fundamental data for music education research and to stimulate a more active expansion of music programs by investigating the contents and the state of operation of the Free Semester music programs now in execution nationwide in Korea. The study analyzes Free Semester music programs by categorizing them by 'genre', 'topic', and 'elective activities, art/physical activities and their number of hours'.

To this end, 411 middle schools in 14 cities and provinces have been surveyed about their operation of the Free Semester music programs. The survey was categorized and analyzed using the Microsoft Excel 2016 software, and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ly, out of the total 1013 Free Semester music programs, there were 66 Korean traditional music programs, 135 Western music programs, 278 Pop music programs and 278 musical instrument programs in the order of lowest to highest number of programs by genre. There were 158

programs that were categorized as other.

When further divided into sub-genres, 51.5% of Korean traditional music programs were samulnori classes, and 32.6% of Western music programs were choir classes, showing the highest proportion. The 28.8% of pop music programs were guitar classes, and 34.6% of musical instrument programs - which are relatively easy to approach - were ukulele classes, also showing the highest proportion. Out of the other music programs, the most common form was classes that integrated two or more academic topics with music.

Secondly, programs could be categorized by topic into singing, instrument playing, creation, listening, and acculturation. Among the categories, instrument playing was the most common form, with 630 classes which represented 62.2% of the total.

Thirdly, the number of hours of music programs among art/physical activities was higher than that of elective activities, with 87.5% of total art/physical activities hours being music programs. Furthermore, the number of hours of elective activities and art/physical activities was determined based on the school's conditions, and 68 hours was the most common length, representing 44.5% of the total.

The study also revealed that instrument playing programs was the most common out of all programs by topic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programs was the least common out of all programs by genre.

In conclusion, new programs for singing, creation and listening must be created and more Korean traditional music programs must be opened for a more active operation of the Free Semester music programs.